

현 금융위기 손실 1조4천억달러 보다

## 삼립 훠손 경제적 피해 3배 많다

도이체방크 연구팀 분석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손실이 1조4천억 달러라는 분석이 있지만 삼립 훠손으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이것의 3배에 달한다고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 인터넷판이 11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유럽연합(EU) 집행 위원회 보고서를 인용, '금의 파괴'에 따른 환경적 피해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경제적 비용으로 산출한 결과 매년 2조~5조 달러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현지시간) 세계금융정보보고서(GFSR)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따른 국제적 손실이 지난 4월 추정한 9천450억 달러에서 4천550억 달러가 늘어난 1조4천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도이체방크의 파판 주크데프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이번 주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환경보호총회에서 발표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자연의 가격표'를 매기기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 깨끗한 물과 같이 숲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결과 숲의 감소가 세계 총 국내총생산(GDP)의 7%에 해당하는 비용을 유발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보고서는 "전통적인 경제 계산법으로는 음식, 섬유소, 연료, 깨끗한 물, 비옥한 땅, 홍수 예방 등 숲이 주는 자연적 선물이 간과되기 쉽다"면서 "우리의 웰빙이 이 같은 '생태계 서비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데도 이것은 시장도 없고 가격도 없는 공공재와 같아서 현재 우리의 경제적 고려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슈피겔은 또 이 연구팀이 지금은 다른 자연계의 가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보여주는 미래는 황망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2100년 내 해수면 1m 상승

유엔 18~59cm 전망은 지나친 낙관론”

獨 과학자 온난화 경고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가 예측한 지구 온난화의 결과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1m 올라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독일 과학자들의 연구가 나왔다.

포츠담 지구온난화영향연구소(PIK) 연구진은 IPCC가 미래에 측에 사용한 자료들은 현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금세기 안에 해수면이 1m 상승할 것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금세기 말까지 지구 기온 증가 폭을 단 2도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계

획은 막대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후변화 자문인 한스 요아힘 셀른후버 PIK 소장은 이번 연구는 IPCC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접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IPCC는 지난 2005년 까지의 자료를 근거로 삼고 있지만 이후 북극권의 해빙 상실 규모는 2~3배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실된 그린란드 빙상의 20%는 중국의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증가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목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CC는 오는 2100년까지 해수면이 18~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바른 먹을거리로 영·유아 교육 실천

■ 광주·전남 생태유아공동체

## 패스트 푸드는 가라! … 살아 있는 유기농 먹는다



광주·전남 생태유아공동체가 지난달 27일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마련한 '생태유아 벼룩시장'. 현 교과서와 종고 의류 판매부터 장난감 교환하기, 전통 장난감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전남 생태유아공동체 제공〉

## 유치원·어린이집 20여곳, 생산자와 연계 우리 농산물 직거래

## 2003년 11월 발족 … 아이들 먹을거리 개선 건강한 공동체로

고교 급식개혁운동, 자연부만 운동, 모유먹이기 등으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광주시청 앞 광장에서 생태유아 벼룩시장을 열어 '전쟁놀이 장난감 고환',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전통놀이 체험관' 등 다양한 행

사를 펼치기도 했다.

광주·전남 공동체 송준석 회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고 농촌을 살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회원들은 먹을거리 개선운동에 이어 초·중·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며 "최근 발생한 멜라민 사태와 학교급식 문제 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경제 논리에만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제철 음식과 친환경농산물을 먹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다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원으로 참여한 유아교육시설은 공동체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격, 재배자 이름을 일일이 볼 수 있으며 계절에

맞는 음식을 공급받게 된다. 공동체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장은 전남지역 1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생태유아공동체의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곳은 아직 20여곳에 불과하다. 광주·전남 지역 전체 유아교육시설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폭넓은 참여가 절실히다.

송 회장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나 학습지 공부를 시키는 등 일시적인 효과에만 치중한 채 장기적인 안목의 먹을거리에는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광주가 건강한 먹을거리와 생명운동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유아교육시설은 물론 행정당국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상기자 kps@kwangju.co.kr

## 지구 온난화 피하려 산으로 이동

## 고도 1천m당 기온 5.2~6.5도 낮아

## 열대 동식물 고지대로 올라간 까닭?

지금까지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지는 지구의 양극 지역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는 열대 동식물들이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됐다.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 연구진은 중미 코스타리카의 한 화산 원기지대 생태계를 연구한 결과 저지대 동식물들이 온난화에 밀려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사이언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산에 올라가면서 약 2천 종의 동식

물 자료를 수집한 결과 절반 가량은 서식 가능한 고도범위가 매우 좁으며 이 때문에 현재의 서식환경을 유지하려면 남쪽이나 북쪽으로 수 천km를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를 동식물을 면 거리를 이동하기보다는 고도 1천m당 기온이 5.2~6.5도 낮아지는 산에 올라가는 쪽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을 600m 올라갈 경우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들어서게 되며 인간 활동

의 결과 숲이 극심한 파편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일부 종은 이동할 수조차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진은 지구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열대 저지대의 산에서 이런 식으로 동식물이 떠나게 되면 빈 자리를 채울 새로운 종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는 동식물이 전보다 더 심해진 더위에 적응할 수 없게 되면 멸종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앞으로 1세기에 걸쳐 기온이 3.2도

상승하게 되면 연구대상인 저지대 동식물 1천 902종 가운데 53%가 서서히 개체수가 감소하는 '마멸'(磨滅) 현상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스지에 실린 베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진의 보고서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소형 포유류들이 온난화에 따라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나 활동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18년에 발표된 이 지역 생태계 연구와 현재 상태를 비교한 이 보고서는 소형 포유류의 절반은 활동영역을 바꾸었지만 절반은 그렇지 않아 동식물 종간의 상호작용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화가 너무 급속히 진행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붕괴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1588-5555 701-0100  
1588-5555 701-0100  
1588-5555 701-0100